

새마을 運動과 郡單位 公共圖書館奉仕

姜 禮 權
(康津郡立圖書館長)

1. 새마을運動의 定義와 理念

새마을 運動을 한마디로 集約, 定義하면 『勤勉·自動·協同하는 새마을 精神을 啓發하고 俱現하여 궁극적으로 잘 살기위한 實踐運動임과 同時에 그 精神을 生活에 옮기는 行動哲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3年前부터 불붙기 시작한 새마을 運動이 農路를 닦고 넓히며 지붕을 改良하는 등 環境改善作業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農村에서는 그것이 새마을 運動의 全部인 것으로 그릇 認識하고 있다.

새마을 運動은 環境改善 外에 精神啓發과 所得增大 등을 包括하는 概念이다. 오히려 이 運動의 根幹은 새마을 精神을 일깨우고 啓發하는 데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勤勉·誠實한 努力과 科學的·合理的 方法으로 農村의 生活環境을 改善하고 自然資源을 生産的으로 開發活用하여 나아가서는 國土를 아름답게 保存하여 「살기 좋은 마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實踐을 本領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 運動은 막연히 잘살아보자는 것이 아니고 歷史觀, 國家觀, 民族觀을 確立케 하고 使命意識을 일깨워, 創造의 意志와 自覺과 奮發을 바탕으로 하는 精神的인 土壤을 가꿈과 同時에 段階的이고 具體的인 實踐 가능한 Project를 마련하여 持續的으로 開發하자는 福祉化 運動이다.

또한 이 運動은 維新課業과 直結된 理念的인 土壤 위에서 國力培養과 平和統一을 指向하는 우리 民族의 一大 躍進運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農民의 知能開發과 科學化

人間的 意慾과 自信과 信念은 知識의 힘에서 솟아나는 思考力과 自覺에서부터 出發한다.

새마을 運動이 成功的으로 展開되기 위해서는 모든 農民들에게 知識과 精神的인 受容姿勢가 어느 程度 갖추어져 있어야 만이 그 實現可能性을 期待할 수 있다.

識과 自覺과 精神的인 土壤이 貧弱한 人的 狀況 아래서 知的 새마을 運動은 可視的, 外形의 一時的인 變化는 있을지 모르나, 어느 고비에 가서는 벽에 부딪치고 만다. 새마을 運動은 他律的인 힘. 이론바 機械나 物資가 主體가 아니라 사람이 그 成敗를 左右하는 決定的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運動이 農民들의 意識構造의 改革을 前提로 한 經濟開發促進運動임과 同時에 1+1=2+a의 協同의 原理를 일깨우는 <캄페인>이라고 할때, 그것을 成就할 수 있는 原動力은 農民 한사람 한사람의 知識과 슬기에서 싹트는 自覺에서 또한 意慾에서 求할수 밖에 없다.

지난날 우리 農民들은 貧困이 人間의 意志로 克服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커녕, 하나의 宿命으로 諦念해 버리는 安逸하고 나태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地球上의 모든 나라는 未開國, 後進國, 開發途上國, 先進國으로 나누어져 그 生活이나 文化水準에 있어서 큰 格差와 不均衡을 보이고 있으나 그렇듯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理由는 그 나라의 地政學的 位置나 그 나라가 保存하고 있는 自然資源의 多寡에도 要因이 있겠고 그 보다도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國民들의 知識水準과 精神的 姿勢·行政方式에서 찾아야 마땅한 것이다. 일찌기 우리보다도 훨씬 不利한 地理的 位置에서 쓰라린 受難과 困辱과 挑戰을 이겨내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오늘 날 몇갑절 더 잘살고 있는 <덴마크>의 歷史的 事例에서 배울 바 좋은 實證을 찾아 볼 수 있다.

<덴마크>國家運命이 衰亡一路를 치닫고 있는 危機의 竿頭에서 救國의 巨人 「그룬트비히」를 中心으로 展開된 ~우리나라의 새마을 運動과 같은~國家再建運動의 重要한 基本課業을 살펴 본다면 대충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 條 : 「크리스텐·콜」을 先頭로 한 <덴마크> 特有의 國民高等學校運動...正規學校教育이 아닌 成人들의 精神과 知識을 涵養하는 社會教育.

둘 條 : 「달가스」를 先驅者로 한 開拓事業과 造林運

動. …지금의 새마을 가꾸기 운동과 같은 것.

셋째 : 「스텐버그」의 公共圖書館運動…現在〈덴마크〉는 人口 3千名에 公共圖書館 1個館이 알차게 運營되고 있으며, 거기에서 따르면서 移動自動車文庫가 家庭과 마을을 누비면서 最大限으로 館外奉仕活動을 하고 있다.

네째 : 「요르겐센」의 有名한 協同組合運動.

다섯째 : 「버델슨」의 模範部落運動…우리 나라의 基礎·自助·自立 등 類型으로 區分된 새마을을 造成운동과 같은 것.

여섯째 : 「니엘스·북」을 先頭로 展開된 國民體育運動.

일곱째 : 「푸요」의 畜産運動.

여덟째 : 「칼·니엘슨」의 音樂運動. …건전한 國民合창「켄케인」을 벌려, 希望과 勇氣와 團結心을 북돋음…

등을 들 수 있다.

이〈덴마크〉의 새마을 運動史에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것은 當時 〈덴마크〉政府高位層과 各界의 指導者들이 經濟開發과 더불어 國民들의 精神教育和 公共圖書館을 통한 國民들의 知能開發과 文化教育에 얼마나 많은 人的, 物的〈에너지〉를 投入하였고, 公共圖書館 開發에 얼마나 至大한 執念과 努力을 기울였는가를 歷歷히 찾아 볼 수 있다. 오히려 當時〈덴마크〉가 國民들의 精神教育和 公共圖書館 開發이라는 必須不可缺의 基本事業에 優先的인 投資와 施策上 力點을 두었기 때문에 오늘 날 地上樂園을 이룩할 수 있었고, 美國이 우러러 쳐다보는 繁榮을 누릴 수 있었다는 當爲性을 雄辯으로 立證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못 살아 왔다는 것은 不可抗力의 歷史的 호름과 地政學的 與件때문이라고도 하겠으나 이보다도 國民들이 一般的으로 無知한 상황속에서 머리를 쓸 수 없었거나 努力을 안했거나 또는 精神的 側面的 自覺에 있어서 아주 뒤떨어졌기 때문에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서글픈 結果였다.

새마을 運動을 成功的으로 그리고 持續的으로 이끌어 가는 核心的인 要件이 農民들의 精神的, 意識構造의 改革과 生活의 改善, 營農의 科學化에 있다. 그렇다면 이모든것은 「아는 힘」을 길러는 知能開發事業을 통해서 만이 可能하다고 갈라 말할 수 있다. 知的能力이 갖추어 지므로써 自覺과 創意力이 뒤따르고 새마을 運動에 뛰어드는 精神的 受容態勢로 昇華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農漁村의 革新的인 開發을 서두르기 위해, 새마을 運動을 즐기차게 그리고 착실하게 展開하고 있다. 農漁村의 革新的인 開發을 위해서는 科學技術

로 뒷받침되는 農業의 現代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중에서도 먼저 變革이 이루어져야 할것은 代代孫孫 전해 내려오는 前近代의인 思考方式과 農事方式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제 農民들은 「농사꾼」에서 벗어나 「農事되는 技術者」로 탈바꿈 해야 한다.

農事의 科學化는 새마을 運動의 基本方向이기도 하다. 農民들의 知的 能力開發만이 農事의 科學化를 可能하게 하고 또한 農村所得增大를 위한 生産的 底力을 培養하는 길이다. 그와 같이 새마을 運動과 農民의 科學化運動이 不可分의 것이며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同一體라고 한다면 農民의 科學化를 直接·間接으로, 돕고 確實하게 持續的으로 길러주는 役割과 機能을 擔當하고 있는 郡單位公共圖書館의 館外奉仕活動이야 말로 必須不可缺의 새마을 運動이요, 새마을 運動과 떼어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時急한 Project가 바로 郡單位 公共圖書館의 館外奉仕活動이다.

3. 館外奉仕의 開發

앞서 論及한바와 같이 새마을 運動은 勤勉·自助·協同하는 새마을 精神을 啓發하고 具現하는 일이 根本課題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勤勉을 일깨우는 힘, 自助의 意志力·協同의 知慧를 북돋우는 가장 큰 源泉은 책이다. 새마을 精神에서 波及되는 效果를 持續化시키고 極大化시키는 무서운 힘이 책에서 이루어 진다고 한다면 農民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充分한 與件을 마련해 주는 일이 새마을 運動에 있어서 가장 優先的인 事業으로서 併行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새마을 運動은 讀書習慣이 없는 農民들의 讀書運動과 더불어 展開되어야 하고 農村의 讀書人口의 底邊擴大와 더불어 새마을 運動이 擴散되고 發展해 가야 한다. 農民들에게 무작정 책을 읽자고 呼訴하는 것이 讀書運動이 아니다. 그들 農民들의 實情과 程度에 알맞고 부담없이 쉽게 읽을 수 있는(讀書趣味를 갖들일 수 있는) 읽을 거리를 農民들의 生活周邊에 자주 接近시켜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편리한 契機를 마련하여 주어 讀書意慾을 誘發하는 System과 活動이 先行되어야 한다. 遠距離에 있는 農民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도서관의 씨를 골고루 뿌려주는 活動이 郡單位 公共圖書館의 館外奉仕이다.

歐美의 地方公共圖書館에서는 分館以外에도 配本所(Delivery Station)나 圖書寄託所(Deposit Station)나 巡廻文庫 등 Station 類型의 새로운 館外奉仕 形態가 開發되었고 특히 나중에 등장한 移動自動車文庫는 가장 特色있는 奉仕形態로서 가장 能率的이고 効率的인 點에서 脚光을 받고 있다.

地方公共圖書館 館外奉仕活動은 이와 같이 다섯가지

形態로 段階的으로 開發되어 왔고 또한 그러한 奉仕形態가 歐美·日本 等 先進諸國에 있어서의 公共圖書館 發展의 한 Pattern으로 形成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 實情에 알맞고 가장 效果的인 館外奉仕의 開發方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意圖에서 筆者는 미니分館, 寄託所, 配本所, 巡廻文庫 등의 機能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마을文庫活用に 重點을 두고 郡單位公共圖書館의 館外奉仕를 論述하고자 한다.

1970年 9月 5日「UNESCO東京出版센터」에서 出版된 「아시아의 出版文化」(Book Development in Asia)에 실린 유네스코 使節團의 報告書 가운데 한국의 「마을文庫」에 關해서 다음과 같은 內容으로 報告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單一民族이 單一言語를 使用하고 있으므로 教育은 比較的인 널리 普及되어 있으며 國語解讀率도 70%로서 아시아 國家中 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開發途上國에서 흔히 말하듯이 文盲이 많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이 적다라는 理由는 한국에서 適用되지 않는다. 問題는 讀書習慣의 不足에 있다〉고 前提하고 〈한국의 마을文庫는 世界에 前例가 없는 獨創性과 優秀性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마을文庫運動이 一見 微微한 運動같이 보이지만 讀書習慣을 養成하는 데 극히 귀중한 運動이고 無限한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고 높이 評價하고 있다. 現在 마을文庫는 全國 3萬5千餘個의 自然部落中 이미 3萬個所에 設置되었고, 올해 안으로 나머지 마을에 全部 設置完了하도록 되어 있다.

同報告書에 指摘된 바와 같이 農民들의 讀書習慣을 養成하는 데 귀중한 運動媒介體로서 마을文庫가 無限한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郡單位 公共圖書館運營者가 管内 마을文庫를 對象으로한 獨特한 館外奉仕形態를 적극 開發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既設은 勿論 앞으로 新設되는 郡單位 公共圖書館은 이미 管内에 設置된 마을文庫와 運營管理上 直結하여 農民의 讀書人口 擴大에 意圖的인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自然部落에 設置된 마을文庫는 一定한 規格의 〈책장〉과 〈기본 도서〉가 設置되고 男女 靑壯年들로 構成되는 讀書會를 組織하여 이를 管理運營하는 自律的인 讀書運動의 施設이요, 〈독서 씨클〉이다. 現在 이미 設置된 마을문고 運營實態를 보면 大體的으로 3分の1은 質과 效果面에서 바람직하게 運營되어 있고 3分の1은 現狀維持程度이며 나머지 3分の1은 放置狀態 아래 놓여 있다. 이와 같은 實態는 元來부터 讀書習慣이 없는 農村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當然한 現像이라고 하겠으나, 어려운 與件을 打開하면서 意慾的으로 讀書運動을 展開하여 年間 마을文庫讀書會에서 2萬원~7萬원 相當의 新刊良書를 購入하여 輪讀하고 있는 成功的인 文庫活動이 있는 반면

郡立圖書館에서 供給된 圖書以外에 自體的으로 한권의 책도 求得하지 않고 있는 精神的으로 뒤떨어진 마을文庫도 많이 있다. 그러나 教育計劃의 權威者인 〈미시간大學〉의 「콜·브렘백」博士가 學校外的인 教育에 關해서 指摘했듯이 “學校와 學校外를 包含한 모든 教育計劃과 教育制度를 短期間의 結果로 成敗를 速斷하기 시작하던 그 나라의 教育은 永遠히 試行錯誤만 계속한다” 「性急한 結果를 기다리는 教育關係者의 思考態度는 큰 잘못이다」라고 警告하였고 이어서 「어떤 훌륭한 教育制度도 實踐하는 過程이 問題이고 여러 가지 時急한 課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그나라 마다, 그 나름대로의 적절한 戰略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의 所信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한 意味에서 마을文庫는 새마을運動의 精神的인 知能開發의 據點으로서 長期的인 恒久的인 持續的인 Project로 維持發展시켜야 하고 새마을單位的인 〈미니圖書館〉구실을 할 수 있도록 大膽하고 果敢하게 育成開發해야 한다. 外國의 경우 公共圖書館 館外奉仕網은 圖書寄託所·配本所·分館·自動車文庫活用在 一般化되고 있다. 寄託所(Deposit Station)이란 圖書館 本館이나 分館을 利用하기 어려운 地域의 住民들을 위해 商店·學校·工場·클럽·團體의 施設一部를 빌려, 少量의 藏書를 비치하고 住民들에게 利用시키는 곳을 말한다.

配本所(Delivery Station)는 圖書館의 出張所 形態로 책을 비치하지 않되 圖書館과 利用者의 사이에서 利用者의 要求圖書를 本館에 連絡해서 貸出·返納의 仲介者 役割을 하는 곳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現在 公共圖書館이 寄託所나, 配本所의 〈시스템〉을 本格的으로 갖추고 있는 곳은 없다. 마을單位에 設置된 마을文庫는 上記한 寄託所·配本所의 機能을 갖추고 奉仕·指導의 活動을 기다리고 있는 훌륭한 施設이므로 郡單位 公共圖書館은 이를 館外奉仕의 據點으로 活用한다면 우리나라 農村의 實情에 가장 알맞는 圖書館網을 形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境遇 郡單位 公共圖書館 館外奉仕活動에 가장 큰 問題點은 能率性和 機動力과 資料와 專門職(人力)의 確保다.

한 두명의 職員이 遠距離에 點在하고 있는 200個所 以上の 마을文庫奉仕網을 어떻게 能率的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問題點이다. 人間의 努力과 미치는 힘에는 限界가 있다. 따라서 奉仕網의 擴大과 開發에 一大革新을 期하기 위해서는 必須的으로 自動車文庫가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自動車文庫와 마을文庫가 連結이 되지 못한 郡立圖書館 館外奉仕活動은 期待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또한 마을文庫만의 郡單位 公共圖書館만의 獨自的인 成長과 存立發展도 기대할 수 없다.

비록 自動車文庫없이 最少限度 館外奉仕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장 非能率的 狀態이고 세마을 운동의 擴散的인 効果面에서 持續的인 成果面에서 期待를 바랄 수 없다. 그와 같이 斷言할 수 있는 것은 지난간 10年동안 筆者가 自動車文庫없이 心血을 傾注한 가운데 겪은 바 뼈저린 經驗에서이다.

能率의 極大化를 期할 수 있고 經濟的인 奉仕活動을 展開할 수 있다는 方法上 問題와 세마을 운동의 精神資源開發의 據點인 마을文庫讀書會의 指導育成을 적극적으로 믿고 나갈 수 있다는 成果的 側面에서 볼 때 自動車 文庫라고 하는 機動力을 必須的으로 確保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時急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自動車文庫의 長點을 要約하면

- ① 좁은 面積에 2千卷 以上の 많은 도서를 自然部落까지 운반 할 수 있다.
- ② 圖書의 更新이 신속하고 自由롭다.
- ③ 짧은 時間에 많은 量의 도서를 貸出할 수 있다.
- ④ 辭典, 便覽, 年鑑 등 基本參考圖書의 運搬도 可能하다.
- ⑤ 基本的 圖書館奉仕가 可能하고 圖書館에 對한 PR도 결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 ⑥ 하나의 마을文庫讀書會에 對한 訪問回數가 3週에 1回程度이므로 奉仕網에 全體에 對하여 奉仕業務의 能率을 最大限 올릴 수 있다.

이와 같이 自動車文庫는 農村讀書人口의 底邊擴大를 위해 가장 빠르고 能率的인 方法일뿐 아니라, 沈滯되어 있는 公共圖書館 館外奉仕活動에 一大 活力素가 된다.

앞으로 郡單位 公共圖書館은 그 運營의 加重值를 館內奉仕에 20% 館外奉仕에 80%의 比率를 두고 奉仕網에 對한 圖書貸出 “센터”로 그 運營體制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것이 不備하고 不足한 現在의 郡單位 公共圖書館의 實情으로서는 館外奉仕活動이 不可能하다는 것이 슬직한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奉仕해야 되고 奉仕할 것을 前提로 할 때 도서관 管理者는 마을文庫를 活用함에 있어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일이다. 그것은 讀書習慣이 없고 組織活動經驗이 없는 農漁民들을 바람직한 마을 文庫讀書會로 育成시키는데는 相當한 해를 두고 難關과 隘路 그리고 失望이 따른다는 것을 豫測하고 있어야 한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格言은 바로 도서관 館外奉仕網인 마을文庫育成을 두고 하는 말이다. 勇氣와 執念·忍耐와 熱誠으로 굳어진 開拓의 意志가 없이는 所期의 成果를 바랄 수 없는 것이 바로 農民을 相對로 한 郡單位 公共圖書館奉仕임을 알아야 한다. 館外奉仕活動에 있어서 또 하나의 重要한 課題

는 館外奉仕任務를 一貫性 있게 持續的으로 誠實하게 遂行하기 위해서는 上記한 開拓의 意志가 強하고 마을 文庫讀書會를 指導育成할 수 있는 有能한 職員을 確保하는 일이다.

4. 現在의 地方公共圖書館 實態

現在 館外奉仕의 開發을 못하고 있는 地方 公共圖書館의 深刻한 問題點을 本欄에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自他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圖書館은 公共圖書館(一般國民의 圖書館)의 數보다도 大學·中高校·特殊圖書館의 數가 더 많은 畸形的인 成長, 開發過程을 밟고 있다.

그 나라 國民의 文化水準과 圖書館水準의 尺度를 公共圖書館에 두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公共圖書館 開發의 不毛地帶에 놓여 있다고 해도 지나친 表現은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館外奉仕活動 以前의 停滯 내지는 沈滯段階에서 한걸음도 前進를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특히 地方 郡單位 公共圖書館이 그렇다. 主務當局은 73年度부터 「公共圖書館 設置 5個年計劃」을 마련하여 73年度까지 5年동안에 139個의 市·區·郡單位에 公共圖書館 設置完了를 計劃 했었다. 그러나 現在까지 完全 開館運營되고 있는 것은 不過 20餘個館 뿐이다. 그나마 그것도 職制(專門司書職公務員)도 없고 藏書 2,000卷 內外에 臨時職員 한 두 사람이 책을 지키고 있는 서늘한 實情이고, 平均 年間 豫算이 最低 57,000원에서 10만원, 17만원, 20만원 程度이고 30만원 內外가 3個館, 50만원, 160만원 190만원이 各各 1個館으로 되어있다. (70年圖書館統計)

앞으로 郡單位 公共圖書館이 正常的으로 館外奉仕網인 마을文庫를 통해서 세마을 운동을 展開하려면은 最少限度 400만원에서 500만원의 豫算이 所要된다고 본다. 여기에는 이미 自動車文庫가 確保된 것으로 보고 一部 車輛運營費를 包含한 것이다. 主務關係部處 및 地方自治團體에서는 세마을 운동에 必須的인 事業機關으로서 郡單位 公共圖書館이 그 機能을 發揮할 수 있도록 豫算編成指針에 豫算所要 判斷基準額을 明示해 두어야 한다.

또한 公共圖書館에는 반드시 自動車文庫를 두어야 한다는 明示의 義務規定을 新設하여 圖書館法을 時代的, 國家的, 要求에 발 맞추어 發展的 改正을 時急히 서둘러야 한다.

또한 公共圖書館에 對한 올바른 認識이 貧弱하다는 點이다. 即 一般國民들의 社會教育을 위한 中樞의 機關인 公共圖書館에 對한 價値基準과 基本概念을 他圖書館과 혼돈 하여서는 안된다.

5. 結 語

農民들의 知識과 自覺, 올바른 意識과 마음의 姿勢가 새마을 運動의 求心點을 向해 集結되므로서 協同과 創造와 生産이라고 하는 앞찬 열매가 맺어진다.

農民에게 創造와 生産의 底力을 培養해 주는 唯一한 方法, 持續的인 方法이 社會教育이다. 그 社會教育의 中樞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郡單位 公外圖書館이며, 그것은 오로지 館外奉仕網인 마을文庫를 通해서 一貫性있게 能率的으로 展開하므로서 만이 可能하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에 對한 關心과 意圖의 努力이 진지하게 試圖된 바가 없고, 停滯狀態를 打開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實情下에 있다. UNESCO에서는 「책은 萬人의 것」이라는 <캣치프레이즈>를 全世界에 내건바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책은 學生·知識人·一部特殊層의 것으로만 되어 있고 人口 50%를 차지하고 있는 農漁民들의 것이 못 되고 있다.

低開發의 狀態를 永久化시켜 왔던 바람직 하지 않는 與件을 改善하지 못한 重要한 分野가 바로 農村의 讀書不在現像과 關連된 郡單位 公共圖書館 開發事業이라고 明白히 지적할 수 있다. 先進開發國에서는 國民 한 사람이 年間 平均 2,000페이지에서 3,000페이지 이상을 읽고 있는데 比해서 우리 國民讀書量이 年間 40페이지~60페이지 不過하다는 부끄럽고 낮은 成績을 統計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은 몇가지 分明한 要因이 있다. 그것은

(19面에서 繼續)

환되기 위해서는 문고 대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책임자를 결정하여 책임지도록 함이 좋고 문고의 책임자는 마을문고의 책임도 겸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네번째로 문고의 순회기간에 대해서도 지역의 사정을 심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주내지 3주간이 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너무 길면 무관심속에서 분실을 할 가능성이 있고 너무 짧으면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강요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4. 독서지도는 새마을 교육의 증추이다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 정신운동이라고 함은 이미 앞에서 수삼차 얘기했다 정신운동이란 국민자체의 직접 간접경험을 통한 인격형성과 더불어 사고와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즉 독서를 생활화하여 삶의 가치관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새마을 전설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독서습관(훈련)을 형성시켜야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새로운 기풍조성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지역사회의 문화시설로서 독서에 알맞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없는 상태다. 겨우 있다면 학교도서관 정도가 아닐까? 완전하지는 못할 지라도 어느 정도 조건이 구비된 각급

첫째가 一般國民의 讀書意識이 貧困

둘째가 公共圖書館에 對한 必要성과 認識貧困

셋째가 公共圖書館의 數와 施設, 資料, 人力, 機動力(移動自動車文庫)의 貧困

등을 包含한 公共圖書館 開發事業의 全般的인 貧困性 때문이라는 決定的인 要因을 否認할 수 없다.

知識은 經濟成長을 이룩하는 資本이요, 費用이요, 主要한 資源이다. 따라서 讀書은 生産이요 投資요, 모든 開發의 주춧돌이기에 새마을 運動의 重要한 틀니 바뀌임을 再確認해야 한다.

한 나라가 特別 開發途上國가가 持續的으로 隆盛發展 하려면 크게 나누어 세가지의 絕對要素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 첫째가 一般國民들의 높고 고른 知識水準

둘째가 國民의 團結

셋째가 훌륭한 領導者가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境遇, 이 세가지 絕對要素 가운데 現在 缺如되어 있는 것이 一般國民의 고르지 못한 知識水準이라고 잘라 말 할수 있다. 特別 農漁民의 경우가 아주 뒤떨어지고 있다. 모두가 關心이 없고 모두가 손대기 싫어하는 分野, 그러나 누구인가가 國家百年大計를 위해 一大 果斷을 내려 時急히 서둘지 않으면 안될 分野가 農村地方의 公共圖書館 開發이라고 하겠으며, 國家發展과 새마을 運動에 있어서 公共圖書館이 차지하는 重要性을 다시금 再強調하고 이에 對한 果敢한 投資와 바람직한 開發對策이 時急히 이루어 져야 만 한다.

학교도서관에서 새마을 운동에 관계되는 제반 자료를 중심으로 “새마을 이동문고”를 실시하고 나아가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훈련을 실시하는 일은 새마을 교육을 알뜰히 하는 것이며 도서관 봉사방법으로서도 최선의 방법이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 운동의 근거는 정신혁명이라는 대명제를 명심하고 학교도서관이 국민정신 개혁운동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나 실무진은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도서관 뿐만 아니라 각급 도서관에서는 현재의 단일한 봉사방법에서 좀더 차원 높은 산(生) 봉사방법에 대해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끊임없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의 주어진 시간 주어진 제목의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參 考 文 獻

地域社會開發과 農村近代化	朱 權 著
韓國의 社會教育	황 중 건 외
교육과 教育學	鄭 範 模
山村地域社會開發에 관한 研究	朱 權
教育評論 Vol. 162, 164, 165, 169, 170.	
도서관 Vol. 27	
새교육 1969년 1월호~72년3월호	